

보도시점 2025.03.25.(화) 17:00 배포 2025.03.25.(화) 14:00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접근 추진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新서비스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
- 숙박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유형 정비, 관리체계 정비, 품질개선 지원 등 추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은 3.25(화)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기재부 1차관, 박병원 민간팀장, 민간위원, 관계부처 차관, 기재부 청년보좌역

오늘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과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숙박업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대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경제 전환 촉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중점 추진해 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24.10월 발의),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25.2월 발의) 등 주요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금년 3월에는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도 새롭게 공표(3.19일)하였다.

이와 함께,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대책을 지속 마련하였다. 또한,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등도 확대하였으며, 결혼, 상조, 모빌리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발전방안도 지속 추진해왔다.

김 차관은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 핵심 먹거리 산업인만큼, 앞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서비스기업의 건의·애로사항을 반기별로 조사하고 서비스산업 관련 통계를 확충하는 등 정책 추진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서비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장전략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新서비스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접목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 샌드박스로 추진중인 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스마트화·규모화·표준화 등을 통해 저부가가치 업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자원 배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수출, 방한관광 지역 확산 등 구조적인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해 소비자 만족도가 낮은 시장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시장구조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민간위원들은 서비스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소통 확대 노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층 더 고도화된 정책 수립·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은 지난해 추진한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등 정책이 청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비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다음으로, 김 차관은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개선방안」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김 차관은 서비스 R&D는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통해 新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원천이라고 강조하고,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을 R&D 사업부처와 수요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R&D 사례와 세제지원 가능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보강하였다고 밝혔다.

민간위원들은 서비스기업들의 R&D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한 만큼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김 차관은 관계부처의 R&D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서비스

R&D 현장에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난 12월부터 여러 부처와 법률에 관리체계가 산재되어 있는 숙박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재부, 문체부, 복지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숙박업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 김 차관은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농어촌 민박 운영 관련 규제 완화 등에 필요한 법령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숙박업 유형 및 관리체계 정비, 품질개선 지원 등을 위한 정책과제들도 계속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안건

담당 부서 <총괄>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책임자	과 장	박언영 (044-215-4610)
		담당자	사무관	신민경 (mink177@korea.kr)
		담당자	사무관	김동연 (yanidong@korea.kr)
담당 부서 <협조>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4550)
		담당자	사무관	조승호 (sho5825@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	책임자	과 장	이우진 (044-202-6740)
		담당자	사무관	심경식 (ohu1001@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책임자	과 장	김고은 (044-201-1581)
		담당자	주무관	김서진 (seojin2018@korea.kr)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은정 (044-202-2810)
		담당자	사무관	김은희 (silver9788@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동진 (044-203-2861)
		담당자	사무관	임효정 (makeus2me@korea.kr)